

新标准韩国语系列教材

原版引进

新标准韩国语

새로운 표준 한국어

鲜文大学韩国语教育院 著
尹敬爱 李民 权赫哲 译

1

高级



大连出版社
DALIAN PUBLISHING HOUSE

MP3

新标准韩国语系列教材

新标准韩国语

새로운 표준 한국어

鲜文大学韩国语教育院 著
尹敬爱 李民 权赫哲 译

1

高级



大连出版社
DALIAN PUBLISHING HOUSE

©鲜文大学韩国语教育院 2008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新标准韩国语. 高级. 1/鲜文大学韩国语教育院著;
尹敬爱, 李民, 权赫哲译. —大连: 大连出版社, 2008.3
ISBN 978-7-80684-440-3

I. 新… II. ①鲜…②尹…③李…④权… III. 朝鲜语—
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174145号

辽宁省版权局著作权合同登记号:图字06-2007-197号

Original Korean edition © 韩国鲜文大学 2008

Chinese Translation © 中国大连出版社 2008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or transmitted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本书由大连出版社在中国境内独家出版发行
版权所有, 侵权必究

责任编辑:李 岩 乔 丽

封面设计:张 金

版式设计:李 岩

责任校对:赖妍艳

出版发行者:大连出版社

地址:大连市西岗区长白街10号

邮编:116011

电话:0411-83624487 0411-83620941

传真:0411-83620391

<http://www.dl-press.com>

E-mail:ly1199@sohu.com

印 刷 者:沈阳全成广告印务有限公司

经 销 者:各地新华书店

幅面尺寸:200 mm×280 mm

印 张:14

字 数:280千字

出版时间:2008年3月第1版

印刷时间:2008年3月第1次印刷

印 数:1~4000册

书 号:ISBN 978-7-80684-440-3

定 价:36.00元

鲜文大学韩国语学堂的韩国语教材（初级1、2，中级1、2，高级1、2）共6册，本书是其中的高级第1册。

高级1、2册每册分别由10课构成，每课两个章节，第一章以会话的形式出现，第二章以散文的形式展现给学习者。第一章节的具体内容包括对话、读课文回答问题、语法练习、会话练习、韩国语表达等；第二章节的具体内容包括课文、读课文回答问题、语法练习、课文内容概括、词汇练习、成语故事、韩国风俗等。每个章节通过丰富多采的词汇活用练习，将听、说、读、写四个部分有机结合，可以收到很好的学习效果。

本书的主要特点如下：

第一、会话场景丰富，为学习者在各种情境下熟练进行会话提供了大量的素材。

第二、语法练习采用日常生活中常用的会话语句和词汇，为学习者练习实用会话提供了大量的范例。

第三、韩国语表达部分包含了韩国语习惯表达、俗语，并介绍了韩国语词汇的由来，其中丰富的例句为学习者在更高层次上进一步理解和认识韩国语起到了很好的辅助作用。

第四、词汇练习部分选用课文中出现的重要单词、采用形式多样的词汇练习形式，训练学生恰当准确地使用单词的能力。

第五、每课的最后是俗语、四字成语、韩国风俗部分，有利于学

生进一步了解韩国传统文化。

本书不仅适合学校课堂教学，同时为了帮助学生自学，在练习题的编写上更加注重学生的主动参与。特别是作为一本高级阶段的教材，本书没有过多添加中文注释，其主要宗旨就在于希望能够培养学习者自主学习的能力。

2008年1月

编者

목차 目录

제1과 유학과 국제화 시대 留学和国际化时代	1
1 한국 유학준비 赴韩国留学准备	2
2 국제화 시대와 문화 생활 国际化时代和文化生活	11
제2과 유학생생활 留学生生活	21
1 오피스텔·하숙집 구하기 租房	22
2 한국 생활 체험기 韩国生活体验	30
제3과 한국의 음식문화 韩国的饮食文化	41
1 음식문화와 민족성 饮食文化和民族性	42
2 한국음식과 밥상 韩国的饮食和餐桌	50
제4과 친절한 마음 感动的心	59
1 택시·버스·지하철 타기 乘坐交通工具	60
2 친절한 사람 热心人	68
제5과 삶의 지혜 生活的智慧	77
1 장수비결(건강) 长寿秘诀(健康)	78
2 두 걸인과 현자 智者和两个乞丐	86
제6과 한국 문화산책 韩国文化漫行	97
1 서울 인사동 거리 首尔仁寺洞大街	98
2 한국의 정자 韩国的亭子	105
제7과 가족의 사랑 亲情	115
1 가족 선물 사기 给家人买礼物	116
2 아버지의 유언 父亲的遗言	123

제8과 행복과 여유 幸福和充盈	133
1 주말여행 周末旅行	134
2 행복 幸福	141
제9과 한국 민속놀이 이해 韩国民间游戏	149
1 민속놀이에 대하여 关于韩国民间游戏	150
2 윷놀이 尤茨	157
제10과 한국의 여성 韩国女性	165
1 유관순 柳宽顺	166
2 신사임당 申师任堂	175
(新标准韩国语·高级1)语法索引	185
(新标准韩国语·高级1)单词索引	191
(新标准韩国语·高级1)课文译文	201

한국어

제1과

유학과 국제화 시대 (留学和国际化时代)

1-1 상황: 한국 유학 준비

문법: 다름이 아니라

- (으)ㄴ 적이/적은 (한번도) 없다.

안 그래도 -아/어/여서 골치(가) 아프다.

- (으)ㄹ 성싶다.

그런 -기 - (으)ㄴ -이/가 어디 있습니까?

1-2 상황: 국제화 시대와 문화생활

문법: -이/가 있는 가 하면 -도 있다.

-(이)라고 하면 흔히 -기 쉽다.

-다고 보는 -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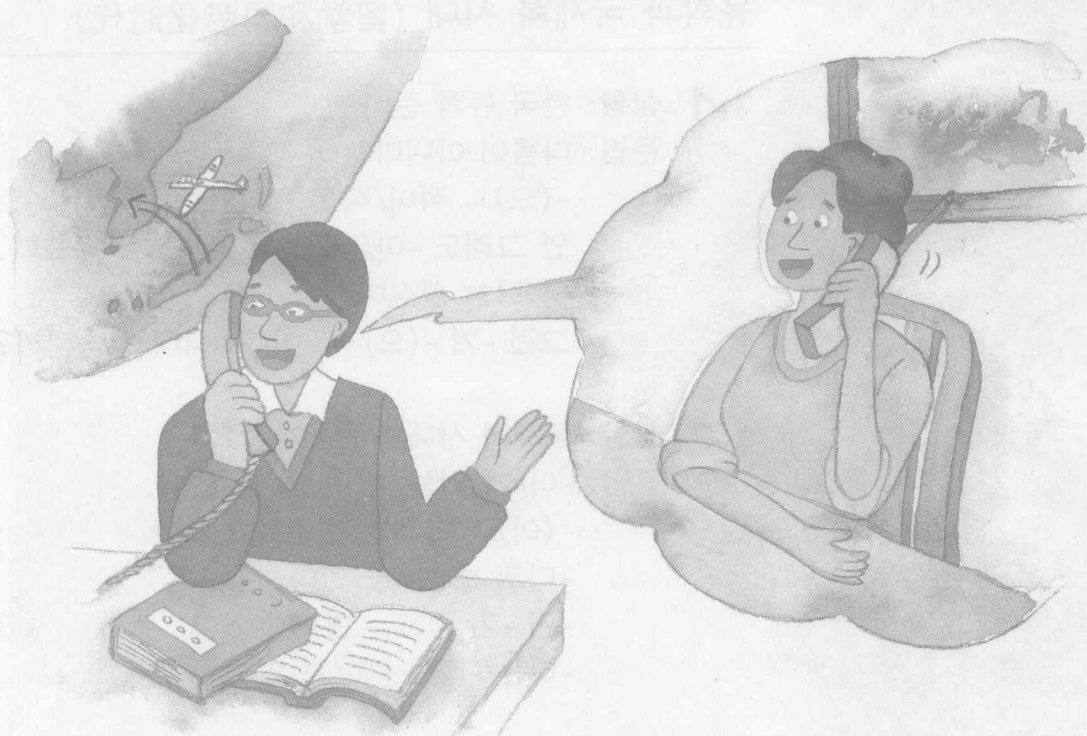
-면 -기 쉽고, -면 -기 쉽다.

-다는/-라는 -이/가 있다.

한국의 풍속: 칠석에 얽힌 전설

기러기
기러기
기러기

① 한국 유학 준비 (赴韩国留学准备)



[1] 대화

아키라: 여보세요. 거기 서울이지요?

마유미: 네, 그런데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키라: 마유미 씨 아니세요? 저 스즈키 아키라예요.

마유미: 어머! 안녕하세요. 스즈키 씨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아키라: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한국에 유학가게 되었어요. 모든 수속은 다 끝나고 다음 주에 떠날 거예요.

마유미: 그래요? 참 잘 됐네요.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아키라: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 가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유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생필품은 웬만한 가게에서도 일본에 못지않게 다양하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쉽게 살 수 있어요. 물가도 일본보다 저렴해서 생활비는 훨씬 적게 들 거예요.

아키라: 그래요? 그럼 당장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겠군요. 안 그래도 짐이 많아서 골치가 아팠는데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곳의 방세나 하숙비는 어때요?

마유미: 서울은 인구가 아주 많아서 방세나 하숙비는 비싼 편이에요. 아키라 씨는 오랫동안 계실 거니까 전세방을 구하는 게 나을 성싶은데요.

아키라: 전세방이요? 전세가 뭐죠?

마유미: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아주 편리한 임대법이에요. 집이나 방을 임대할 때 월세를 내는 대신 목돈을 한꺼번에 주인에게 맡기는 제도예요. 이때 맡기는 돈을 전세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갈 때 전액을 다시 돌려 받는 제도예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해요.

아키라: 전액을 다 돌려 받아요? 그런 믿기 어려운 제도가 있습니까?

마유미: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묻곤하죠. 그 외에도 한국에는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빨리 오세요.

课文单词

유학 【名】留学

수속 【名】手续

생필품 【名】生活必需品

저렴하다 【形】低廉

당장 【副】马上, 立即

전세 【名】全税

임대 【名】租借

목돈 【名】一大笔钱

계약 【名】合约, 契约

선호하다 【他】偏爱

의아해하다 【形】感到惊讶

될 거예요(-꺼-) 【惯】行, 可以

물가(-가) 【名】物价

방세(-세) 【名】房租

하숙비(-삐) 【名】住宿费

전세방(-빵) 【名】全税房

월세(-세) 【名】月租

묻곤하죠(-곤-) 【惯】经常问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세요.

1. 아키라 씨는 왜 마유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2. 마유미 씨는 한국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아키라 씨에게 주었습니까?
3. 전세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보세요.

[3] 문법연습

1. 다름이 아니라

가: 주말에 뭐 할 건지는 왜 물어 봐요?

나: 다름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쇼핑이나 갈까 해서요.

가: 이렇게 밤늦게 웬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나: 다름이 아니라 급히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 부모님께 뭐라고 편지 썼는데요?

나: “드릴 말씀은_____용돈 좀 부쳐 주세요.”라고 썼어요.

가: 무슨 일로 찾아 오셨습니까?

나: _____사람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 혹시 김영수 씨라는 사람 있습니까?

※ 다른 게 아니라

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다른 게 아니라 현주 씨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나: 다른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돈 있으면 2만 원만 꺾 주세요.

2. N-은/는 V-았/었지만(실제로) V-(으)ㄴ 적이/적은 (한 번도)없다.

- 친구로 사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말을 건넨 적은 없어요.
- 세계여행을 떠나려는 계획은 세웠었지만 실제로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 그 영화배우를 영화에서 본 기억은 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그를 업무상으로 만난 일은 있지만 실제로 같이_____은 한 번도 없어요. (근무하다)
- ‘아리랑’ 이라는 노래는 알지만 사람들 앞에서_____어요. (부르다)

※ V-고는 V-았/었지만(실제로) V-(으)ㄴ 적은(한 번도)없다.

- 생선회를 먹고는 싶었지만 비싸기 때문에 먹어 본 적은 없어요.
- 한국어를 배우고는 싶었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 배워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 V-은/는 적은 V-았/었지만(실제로) V-(으)ㄴ 적은(한 번도)없다.

- 사물놀이 공연을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사물을 연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말을 본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실제로 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한국에 직접 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3. 안 그래도 V-아/어/여서 골치(가) 아프다.

가: 이번 문화연수 때는 그냥 몸만 가면 된대요.

나: 안 그래도 준비물이 많아서 골치가 아팠는데 잘 되었군요.

가: 국제회의 센터까지 직접 가는 지하철이 개통되었대요.

나: 안 그래도 교통이 복잡해서 골치가 아팠는데 잘 되었군요.

가: 제가 바로 전화로 말씀드린 김영수라고 합니다.

나: _____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가: 옆방 친구들이 왜 이렇게 떠들지요?

나: _____ 숙제가 많아서 _____ 데 안 도와 주는군요.

※ 안 그래도 V-려던 참이다.

가: 방 청소 좀 도와 드릴까요?

나: 안 그래도 도와 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가: 한국의 전세나 월세에 대해 알려 드릴까요?

나: 안 그래도 그걸 막 물어 보려던 참이었어요.

※ 그렇지 않아도

가: 이제 그만하고 쉬어도 된대요.

나: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혼났는데 잘 되었군요.

가: 철민이가 큰 회사에 취직이 되었대요.

나: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잤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군요.

4. V,A-(으)ㄹ 성싶다.

- 내일은 비가 많이 올 성싶군요.
-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빨래를 걷는 게 좋을 성싶군요.
- 뭘 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습니다.
- 우리 팀이 게임에서 _____-(으)니까 역지를 부리는군요. (이기다)
- 어쩐지 그 녀석이 큰 일을 _____-(으)니 게 영 마음이 안 놓이
는군요. (저지르다)

※ V,A-지 싶다.

- 그 사람이 일본으로 떠난 지 한 일 년 넘었지 싶어요.
- 지금 시간이면 아마 수업이 끝났지 싶은데 자세한 건 잘 알 수 없군요.

5. 그런 V-기 A-(으)ㄴ N-도, -이/가 (어디)있습니까?

- 그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지만 참 신기하군요.
- 그런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있습니까? 참 난감하군요.
- 그런 참기 어려운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못 참겠군요.
- 그런 거절하기 곤란한_____이 있습니까? 참 곤란하군요.
- 그런_____기 딱한_____이/가 있습니까? 그냥 모른 채할 수는 없군요.

※ V-기 A-(으)ㄴ 그런 N-이/가, -을/를 V-았/었습니다?

- 말하기 어려운 그런 속사정이 있었습니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 남들이 시도하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군요.

[4] 대화연습

1. 다음()안에 적당한 말을 넣으세요.

1)가: 마유미 씨 아니세요? 저 스즈키 아키라예요.

나: 안녕하세요. 스즈키 씨 오랜만이에요.()

2)가: 저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한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물건값도 일본보다().

3)가: 전세방이요? 전세가 뭐죠?

나: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아주 편리한()이에요. 처음 집이나 방을
()할 때 주인에게()을 맡겼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는()예요.

2.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한국여행계획〉

여행사 직원: 여보세요? 세일여행사입니다.

아키라 : _____

여행사 직원: 어느 곳을 관광하려고 합니까?

아키라 : _____

여행사 직원: _____

아키라 : 롯데호텔은 비쌉니까?

여행사 직원: _____

아키라 : 그럼, 롯데호텔에 2박 3일로 예약해 주세요.

3.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친구집 방문〉

가: _____

나: _____

가: _____

나: _____

가: _____

나: _____

[5] 한국어의 뿌리와 표현

1. 어원 탐방

1) 감감소식: 소식이 아주 없다는 뜻.

‘감감소식’은 ‘감감하다’라는 말과 ‘소식’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감감하다’는 ‘아주 멀어 아득하다’는 뜻입니다. 즉, ‘감감소식’은 ‘소식이 감감하다’는 말로 대답이나 소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감감무소식’이란 말이 더 자주 쓰이는데 감감소식과 같은 뜻입니다.

예 -어떻게 된 거지? 세 시간 전에 심부름을 간 창호가 아주 감감소식이네.
-이사를 갔다고 그렇게 감감소식이면 어떡하니?

2) 감쪽같다: 말아서 한 일이니 고친 물건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다.

군것질할 게 없던 옛날에는 곳감 한 쪽을 먹자면 누가 빼앗아 먹을까봐 후닥닥 말끔하게 먹어 치우곤 했답니다. ‘감쪽같다’의 ‘감쪽’은 ‘곳감의 한 쪽’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감쪽같다’는 곳감을 말끔하게 먹어 치운 것처럼 일을 깨끗하게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예 -망가진 선풍기를 맹구가 감쪽같이 고쳐 놓았더라.
-냉장고에 넣어 둔 사과 두 개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3) 괜찮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뜻. 또는 그만하면 쓸 만하다는 뜻으로도 쓰임.

‘괜찮다’는 ‘관계치 않는다’는 말이 줄어 생긴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상대가 한 일이 내게 별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때 상대를 안심시키려고 쓰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미안해할 것 없다’는 뜻이지요. 다른 뜻으로는 ‘별로 나쁘지 않다, 그만하면 쓸 만하다’가 있습니다.

예 -미안해할 것 없어, 괜찮아, 다 이해한다니까.
-그 옷 괜찮다, 정말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2. 관용표현

1) 골치(가) 아프다: (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① 골치 아픈 일을 떠맡게 되었다.

② 요즈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골치가 아프다.

㉠ 골치를 썩이다. 골치를 앓다. 머리가 아프다.

2) 골칫덩어리: ① 애를 먹이는 것 ② 말썽꾸러기

① 현대기술이 낳은 최대의 걸작이라는 컴퓨터가 이제 사람을 엮매는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② 그에게는 말썽만 부리는 골칫덩어리 동생이 있다.

3) 골탕(을)먹다: 한꺼번에 크게 곤란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다.

① 선배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골탕만 먹었다.

② 이사간 친구집을 찾다가 골탕만 먹었다.

3. 한국의 속담

1) 공든 탑이 무너지랴.

☞ 정성껏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말.

가: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입학시험에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나: 공든 탑이 무너지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니 꼭 합격할 거예요.

2)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체하고 떠들어 댄다는 뜻.

가: 저 정치인의 말을 들으면 섭외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나: 빈 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저분은 항상 말뿐이에요.